불길서 이웃 구한 양만열 씨에 'LG의인상'

LG복지재단이 양만열 씨(사진)를 새로운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12일 광주 광산구에서 벌어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창틀에 매달린 이웃을 구해내 타인의 모범이 됐다.

당시 양 씨는 새벽 4시경 "불이 났다"는 외침에 잠에서 깨어, 화재가 난 맞은편 아파트 5층에 매달린 이웃을 보고 4층 건물 보일러실로 진입해 안으로 끌어당겼다.

구조된 사람은 다리에 화상만을 입고 무사히 탈출했다. 아쉽게도 함께 매달려 있던 다른 한 명은 그사이 건물 아래로 떨어지면서 구하지 못했다.

양씨는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내 딸 같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뛰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물산 패션부문, OMC 라이딩행사 지원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비영리 캠페인 단체 원마일클로저(OMC)의 캠페인인 'OMC 2019 코리아 5 마운틴(OMC 2019 Korea 5 Mountains)' 라이딩 행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OMC 2019 코리아 5 마운틴'은 9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OMC 2019 코리아 5 마운틴'에 나선 알베르토 몬디(왼쪽부터 차례대로), 수잔 샤키야, 제임스 후퍼. /삼성물산 패션

현대해상, 사회공헌 '소녀 달리다' 행사 개최 현대해상은 지난 2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소녀, 달리다 - 달리기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10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에는 초등학교 여학생 1200여명과 학부모 500여명이 참여했다. 수업 사진전,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운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출발지점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

CJ 오쇼핑 '씨이앤' 태국서 K-패션 알리다 CJ ENM 오쇼핑부문이 단독 패션 브랜드 '씨이앤(Ce&)'을 앞세워 태국에서 K-패션을 알렸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지난 28~29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아레나 및 임팩트 국제전시장'에서 'KCON2019 THAILAND(이하 케이콘 2019 태국)'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케이콘 2019 태국에는 총 4만5000명이 몰렸으며,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높은 이들은 씨이앤 부스에 방문해 K-패션에도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CJ ENM 오쇼핑

롯데제과, 국군의 날 맞아 과자 4000박스 전달 롯데제과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으로 과자 약 4000박스를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로 전달된 과자 1600여박스는 10월 1일 '제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참석한 전국의 여러 부대로 전달된다. 또한 육군본부에 전달된 과자 1000여박스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지상군페스티벌'에 지원될 예정이다. /롯데제과

프랜차이즈산업의 상생

이상헌의 칼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오너리스크, 부실본사에 의한 가맹점주의 눈물 등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본사와 가맹점간의 갑을 관계의 지속적과 구조적 모순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가맹점주의 고비용적 구조 지속과 가맹산업의 과밀화 지속, 경영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가맹점 생애주기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운영·폐업 3단계와 10대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먼저 창업단계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추진전략으로 선정 시행한다.

첫번째, 가맹산업1+1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일정한 조건과 경험도 없는 업체들의 가맹사업 진입에 따른 폐회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인 1개이상의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을 갖춘 본사로 기준을 강화했다.

두번째, 허위, 과장정보 제공 고시를 마련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고했다.

세번째, 편의점 업종의 신규 개설 시 근접 지역에 대한 출점 정보를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분석을 활용해 출점, 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및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이다.

네번째, 예비 창업자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실시한다. 창업자가 하려는 예상 브랜드 정보 이외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분포도, 예상수익 현황,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영업 부진 시 본사의 지원사항 등을 확대 제공해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본부와 점주간의 수익배분 구조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맹금 수취구조의 투명화, 광고 판촉비 부담완화, 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문화 확대 등이 주요골자고, 마지막 폐업단계에서는 폐점 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매출 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부담의 완화, 부당한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관행 근절,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참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항과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은 일방적 본사에 유리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인한 가맹점주의 불이익은 말로 설명할수 없는 형태로 발전해 왔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상생을 기반으로 한 협업 사업형태다. 본사와 가맹점은 믿음과 신뢰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고객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본사의 전문성과 차별적 경쟁력은 필수다. 그리고 도덕적 운영을 통한 점주와의 상생운영 전략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KB국민銀, 전주 청소년 위해 작은도서관 열어

덕진구 '인후비전 작은도서관' 개관
허인 은행장, 김승수 시장 등 참석

지난 27일 전주시 덕진구에 개관한 '인후비전 작은도서관'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지난 27일 전주시에서 '인후비전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함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 2016년에는 KB스타즈(KB국민은행 여자농구단)의 버스를 기부해 전국의 문화 소외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책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개관하는 인후비전 작은도서관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선보이는 작은도서관이다. 특히 주요 사회 관심분야인 환경 관련 도서를 별도로 비치해 지역사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과 친해지고 무궁무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총 79개의 작은도서관에 매년 신간도서를 기증하고 있다. 동화 작가와의 만남과 인형극 공연 등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 허 행장은 "새롭게 단장한 작은도서관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찾고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멘토링과 진로멘토링, 디지털멘토링 등 '청소년의 멘토 KB!'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한국기계연구원** ◇인사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실장(직무대리) 박수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사 △감사부장 오병석 △예산실장 백선호

◆**KBS미디어** ◇인사 △미디어커머스부장 박승규 △전략기획프로젝트팀장 이의연 △해외사업부장 조한상

부음

▲김경택(주식회사 애드21, 주식회사 승보 회장)씨 별세. 김형준(주식회사 애드21 사장)씨 부친상 = 29일, 분당서울대병원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031-787-1500

▲김봉곤씨 별세, 김종훈(텔리언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호(경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윤한주(한국종합기술 상무)씨 장인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30분. 02-3410-3151

▲김효성(전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전 중소기업청 차장·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씨 별세, 김성한(LG전자 책임)씨 부친상 = 30일 오전 6시5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장지 충남 금산 평화공원묘원. 02-3410-6912

▲백문찬씨 별세, 백용만(아이앤아이건설)·춘희(전 초당중학교 교사)·용삼(전 대림여중 교사)씨 부친상, 장용동(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전 헤럴드경제 편집국장)씨 장인상, 백승진(시화병원 신경과 과장)씨 조부상 = 30일 오전 7시,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7시. 031-218-6560

▲최연순씨 별세, 이인성(전 서울대 불문과 교수)·이인철(동양사학자)씨 모친상, 심민화(전 덕성여대 불문과 교수)·신현숙(동양사학자)씨 시모상 = 30일 오전 1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30분, 장지 천안공원. 02-3410-6914

▲한기식씨 별세, 배정순씨 배우자상, 한승훈(삼성전자 부장)·경실·성실씨 부친상, 이유섭(정희장학회 이사장)·이태길(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전무)씨 장인상 = 30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40분, 장지 국립이천호국원. 02-3010-2000